

## 嚴復의 翻譯語 誕生과 그 運命

- 概念語를 중심으로 -

백 광 준\*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1. 새로운 명명법의 차용    |
| II. 번역어 탄생 과정   | 2. 효율성을 향상시키다     |
| 1. 어원을 찾아서      | IV. 엄복 번역어의 운명    |
| 2. 고증의 방법으로     | V. 엄복의 번역 담론을 논하다 |
| III. 수정되는 번역 과정 |                   |

### I. 들어가며

잘 알려진 것처럼, 엄복은 청말에 번역에 특히 힘을 쏟아, 서양의 학술, 철학사상을 중국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특히 그가 번역한 책들 가운데, 《天演論》은 당시 개혁파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미쳤다.

벤저민 슈워츠는 엄복의 서학 번역과 관련하여, “고전 중국어에 구현된 사상세계는 폐쇄적이며 자기충족적인 문화적 단자로서 근대 서양의 언어들에 구현되어있는 문화적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그라네와 위프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엄복의 사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동서양 상호 교차 번역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엄복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타당한 개념어를 번역

\* 서울대학교 강사

해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번역어들이 기대와 달리 유행하지 못하고, 이내 사장되어버린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개념어는 일정한 사상적 함의를 함축하고 있는 어휘로서, 단순한 번역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글에서 살펴보는 개념어들은 엄복이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담론을 대표하는 어휘들로, 다른 번역어들보다도 엄복이 큰 주의를 기울였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 개념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번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II. 번역어 탄생 과정

### 1. 어원을 찾아서

그는 ‘Liberty’의 번역어로 ‘自繇’와 ‘公道’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혹자는 ‘Liberty’의 예전 번역인 ‘自繇’를 응당 ‘公道’로 비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일마다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이는 잘못된 논의이다. 생각건대 ‘Liberty’의 어원은 ‘Libertas’이며, ‘Libertas’는 곧 자유를 상징하는 신의 명칭이다(或謂日翻自繇之西文Liberty里勃而特, 當翻公道, 猶云事事公道而已, 此其說誤也. 謹案: 里勃而特原文作Libertas. 里勃而達乃自由之神号).<sup>1)</sup>

두 대상 번역어 중 타당한 것을 찾는 근거는 다름 아닌 ‘Liberty’라는 말의 어원이었다. 이는 엄복이 번역어를 상상할 때, 손님언어(guest language)<sup>2)</sup>의 어원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았음을 말해준다. 그는 지금의

1) 嚴復, <<群己權界論>>譯凡例>

2) 이 용어는 뒤에 나오는 손님언어(host language)와 함께 리디아 리우가 사용

경제학이라는 용어의 번역어로 ‘계학’이라는 개념어를 떠올리면서, 손님언어인 卞科諾密(Economy)의 의미를 풀이할 때도,<sup>3)</sup> 그리고 ‘헌법’의 어원인 ‘Constitution’을 뜻을 살필 때도 그 어원을 거슬러 탐색하였다.<sup>4)</sup> 그는 이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계학’의 명칭은 바로 ‘Economics’의 본의에서 착안하였으며, ‘명학’의 명칭도 ‘Logos’ 본의에서 착안하였다(計學之名, 乃從Economics字祖義著想, 猶名學之名, 從Logos字祖義著想).<sup>5)</sup>

엄복이 손님언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그 어원을 찾아 나섬을 우선시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가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학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외국어의 특징을 거론하면서, “그 글자의 뜻과 그 어원과 변천을 알 수 있다(其字之義訓與其本原流變之可知)”<sup>6)</sup>고 논하였다. 이러한 서양 언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서양 학문을 사유하였다.

서학에 정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리스어 라틴어를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은 뒤에야 기초가 튼튼한 학문을 이룬다. 대체로 각국의 문자는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류와 변화를 가지런히 살필 수 있다. 만약 이를 공부한 적이 없이 西學을 논한다면, 中學을 말하는 사람이 小學, 六書를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그것이 불가함은 매일반이다. 유럽의 문물과 예술은 대체로 그리스, 로마를 기원으로 삼으니, 문학도 그 원류를 살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希臘、拉体諾二文, 欲精通西學者必以是爲始基, 而后爲有本之學. 盖各國文字, 多從二者而生, 源流正變, 釐然可考, 若未嘗從事而言西學, 無異言中學者之不知小學六書, 其不可一也. 歐洲

한 개념이다. 기존 개념과 비교할 때, 번역 과정에서 주인언어가 가진 착안/발명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 3) 嚴復, <譯斯氏《計學》例言>
- 4) 嚴復, <憲法大義>
- 5) 嚴復, <與梁啟超書·二>
- 6) 嚴復, <英文漢解>

文物術藝, 大抵祖希臘, 而祢羅馬. 詞章之事, 推其原本, 有開必先).<sup>7)</sup>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그가 왜 기원을 탐색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서학이 그리스,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근본적으로 서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기원에서부터 다가서야 한다고 본 엄복의 서양 학술 방법은 그의 번역 방법과 그대로 겹치고 있다.

## 2. 고증의 방법으로

손님언어의 의미를 탐색한 후, 엄복은 상응하는 주인언어(host language)를 찾아 나섰다.

우리말의 ‘自繇’는 항상 방담 방자 거리낌 없음 등의 나쁜 뜻을 갖지만, 이는 이후에 첨가된 뜻이어서, 애초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 애초의 뜻은 그저 외물에 구속되지 않음을 나타낼 따름이어서,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니다(中文自繇, 常含放誕、恣睢、無忌憚諸劣義, 然此自是后起附屬之語, 與初義無涉. 初義但云不爲外物拘牽而已, 無性義亦無劣義也).<sup>8)</sup>

엄복은 ‘Liberty’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기 위해 전적을 고증하였고, 결국 ‘자요’라는 단어를 발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엄복은 개념어를 번역할 때, 고대 전적을 뒤져서 그에 상응하는 단어를 찾으려고 부심하였다. 옛 단어 가운데 비슷한 단어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 맥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을 ‘고증적 번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界說五例>에서 “개념 정의에는 훈고가 불분명한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界說不得用語訓不明之字)”<sup>9)</sup>는 조항을 달기도 하

7) 嚴復, <<原富>>按語>

8) 嚴復, <<群己權界論>>譯凡例>

9) 嚴復, <界說五例>

였는데, 이 또한 그의 고증적 태도를 엿보게 한다.

우리는 위의 글에서 또한 그가 어떤 맥락에서 ‘자요’를 취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전혀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함의를 갖지 않은 단어로서 ‘자요’를 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채택된 ‘자요’의 의미는 파생 의미들이 배제된, 다시 말해서 해당 어휘가 애초 가지고 있던 원 의미였다. 그는 전적 속에 묻혀있는 단어를 찾았을 뿐 아니라, 그 단어 자체의 기원에도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원에서의 ‘본뜻’은 텍스트 주변 환경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분화된다. 이에 대한 엄복의 고민이 이어진다.

개념어가 일단 세상에 유통되어, 오래 지나면 참모습을 잃는다. ……‘자요’의 뜻은 애초에는 그저 자주적이어서 구속받지 않음을 뜻할 뿐이었다. 지금은 ‘방종’, ‘방탕’, ‘불법’, ‘무례’의 뜻이 되어서, 일단 그 명칭을 언급하면, 나쁜 뜻이 달라붙으니, 그 말을 주로 질책하는 데 쓰는 사람들 때문이다(名義一經俗用, 久輒失真. ……自繇之義, 始不過謂自主而無罣碍者, 乃今爲放肆、爲淫佚、爲不法、爲無禮, 一及其名, 惡義彙集, 而爲主其說者之詬病乎!)<sup>10)</sup>

개념어의 어원은 시대가 감에 따라 변질된다. 다시 말해, 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파생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원 의미와 파생 의미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다음의 예를 통해 엄복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지금 번역 글의 ‘헌법’ 두 글자는 국가의 법제에 사용할 수 있고, 관청, 조직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 초목의 형체를 일컫는 경우에는 분명 ‘헌법’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로 추론할 때, 원 번역의 이 개념어는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번역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今譯文憲法二字, 可用于國家之法制, 至于官司局社尚可用之, 獨至人身草木, 言其形干, 必不能沈

10) 嚴復, <《群己權界論》譯凡例>

稱憲法。以此推勸，即見原譯此名，不爲精審。譯事之難，即在此等。<sup>11)</sup>

‘헌법’은 일본 신조어이다. 신조어는 구성하는 글자들의 의미로 뜻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 선택 과정에서 부득이 상대 손님언어에 대한 번역자의 해석을 담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를 포괄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엄복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신조어의 협의에 초점이 있는데, 이는 그가 굳이 신조어를 거부하고, 고대 전적 속에서 상응하는 어휘를 찾고자 노력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그가 고증적 방법으로 번역을 시도한 것은 신조어처럼 단순한 어휘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적의 맥락까지 포괄하는 번역어를 찾고자 했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계초가 경제학의 번역어로 제안한 ‘平準’이라는 단어에 대한 엄복의 관점을 보기로 하자.

예컨대 선생께서 지금 ‘平準’의 명칭으로 바꾸자고 하였지만 ‘平準’은 결코 이 학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平準’이란 바로 西京의 법률의 한 가지로, 이를 관직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다. 적게 거두면 곡식 값이 비싸지는 것은 均輸, 常平의 정치제도와 같은 것인데, ‘計學’의 책에서 논하는 바가 과연 이것인가? 필경 그렇지 않습니다. ……관약 의미가 불충분함을 우려하여, 속되지 않은 것을 택하고, 쓰는 곳곳에서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면, 내 ‘計學’의 명칭이 나은 듯싶습니다 (如執事今易平準之名, 然平準決不足以當此學. 蓋平準者, 乃西京一令, 因以名官職, 斂賤糶貴, 猶均輸常平諸政制. 計學之書, 所論者果在此乎? 殆不然矣. ……若患義界不淸, 必求雅馴, 而用之處處無干格者, 則什計學之名, 似尙有一日之長.<sup>12)</sup>

엄복은 ‘평준’이 고대 전적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그 결과 엄복은 ‘평준’이 포괄하는 의미가 충분치 못함을 지적하였다. 손님언어와 주인언어를 기원의 층위에서 대응시키되, 주인언어의 텍

11) 嚴復, <憲法大義>

12) 嚴復, <與梁啟超書·二>

스트 내에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체로 서학의 개념어를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애초 중국에는 없는 것이거나, 혹 있어도 번역자가 보지 못한 것이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만약 이미 찾아냈다면,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자신은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으면 충분하지만, 통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大抵取譯西學名義, 最患其理想本爲中國所無, 或有之而爲譯者所未經見. 若既已得之, 則自有法想. 在己能達, 在人能喻, 足矣, 不能避不通之譏也).<sup>13)</sup>

그는 고대 전적 속에서 적합한 단어를 찾는 고달픈 과정을 토로하고, 다시 그런 번역이 가진 장점은 맥락의 의미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데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이는 그가 구태여 기원으로 올라가서 주인언어를 찾는 이유를 말해준다.

덧붙여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만약 파생 의미를 충분히 담지해낼 수 없다면, ‘속되지 않은(雅馴)’ 단어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는 그가 파생 의미보다 기원에서의 일치를 더 중시했음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원으로부터 파생된 의미들을 포섭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엄복은 이로 인해 간편한 번역 방법을 채용하기에 이른다.

### Ⅲ. 수정되는 번역 과정

#### 1. 새로운 명명법의 차용

엄복은 지금의 경제학을 의미하는 어휘로 ‘계학’이란 단어를 세웠는데, 이는 전적으로 고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발굴한 것이 아니라, 일부 발굴

13) 嚴復, <與梁啟超書·三>

(計)과 일부 차용(學)의 다소 수정된 번역 방식을 취하였다. 엄복은 ‘계학’이라는 단어를 만든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대체로 그 뜻이 포괄하는 비는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經濟’라고 번역하고, 중국에서도 ‘理財’라고 번역하였는데, 반드시 부합하는 것을 구한다면, ‘경제’는 지나치게 넓고, ‘이재’는 또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직접 만들어서, ‘계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합당하다(蓋其訓之所苞至衆, 故日本譯之以經濟, 中國譯之以理財. 願必求吻合, 則經濟既嫌太廓, 而理財又爲過狹, 自我作故, 乃以計學當之.)<sup>14)</sup>

‘경제’도 ‘이재’도 적당한 번역어가 되지 못하므로, 직접 만들어서 썼다는 것이다. 페데리코 마시니는 “아마도 엄복은 ‘계학’이라는 용어를 만들 때 다른 용어의 존재에 대해 몰랐고, 그 후 일본어 차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sup>15)</sup> 하지만 위 글을 보면, 엄복이 ‘계학’을 만들 때, 이미 다른 경쟁 어휘들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엄복의 수정 전략은 바로 ‘계학’처럼, ‘계’라는 글자만을 찾아내고, 그 뒤에 ‘學’을 명명하여 학술 용어 명명의 일반적 흐름을 따른 것을 말한다. ‘學’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서 신학문의 명칭을 삼는 것은 19세기 후반 서양인 번역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양계초는 이 단어를 눈여겨보고, 직접 ‘天學’, ‘氣學’ 등의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sup>16)</sup> 그러나 양계초는 ‘계학’이라는 경제학의 번역어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엄복은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하였다.

(선생께서) 서신으로 불경의 개념어는 대개 두 음절을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매우 깊이 있는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음절, 두 음절

14) 嚴復, 《原富·譯事例言》

15) 페데리코 마시니 지음, 이정재 옮김, 《근대 중국의 언어와 문자》(서울: 소명출판, 2005), 185 쪽

16) 페데리코 마시니 지음, 이정재 옮김, 《근대 중국의 언어와 문자》(서울: 소명출판, 2005), 139 쪽

은 각기 합당한 바가 있으니, 예컨대 'Economics'가 글에 쓰이면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기도 하고, 등급을 나타내기도 하니, 마땅히 맥락에 따라 헤아려야지, '計學' 두 글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化學'이 때로는 '物質'이라 이를 수 있고, '기학'은 때로 '形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과 같아서, '計學'은 때로 '財政'이라고도 '食貨'라고도 '國計'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 그저 의미 있는 명사를 찾아서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문제는 걱정할 바가 아니니, 번역에 임하여 취사하면 된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來教謂佛經名義多用二字, 甚有理解. 以鄙意言之, 則單字雙字, 各有所宜. 譬如Economics一宗, 其見于行文字, 或爲名物, 或爲區別. 自當隨地斟酌, 不必株守計學二字也. 此如化學有時可謂物質, 凡何有時可翻形學, 則計學有時自可稱財政, 可言食貨, 可言國計, 但求名之可言而人有以喻足矣. ……故竊以謂非所患, 在臨譯之剪裁已耳).<sup>17)</sup>

양계초는 엄복에게 옛 불경 번역에서 개념어는 주로 두 음절의 어휘를 사용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엄복은 단음절, 두 음절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말은 자신이 '계'라는 단음절을 취하였지만, 그 이유는 두 음절보다 더 충분한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 2 효율성을 향상시키다

計라는 것은 그 뜻이 집을 다스린다는 데서 기원하였다. 이로부터 확장하여, 예산, 관리, 절약, 출납의 뜻이 되었고, 확충하여 세계 각국이 생산하여 유용하게 만드는 경제를 뜻하였다. …… '計'의 의미가 地官이 맡은 平准이 관리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전의 전적을 살펴볼 때, '會計'、'計相'、'計偕' 등 어휘가 현재 통용되는 '國計'、'家計'의 명칭과 같으며, 그리스의 '叢摩'와는 비교적 일치하는 것이다 (言計, 則其義始于治家. 引而申之, 爲凡料量經紀擲節出納之事, 擴而充之, 爲邦國天下生食爲用之經. …… 雖計之爲義, 不止于地官之所掌, 平准之所書, 然考往籍, 會計、計相、

17) 嚴復, <與梁啟超書·三>

計偕諸語, 與常俗國計、家計之稱, 似與希臘之叢摩較爲有合).<sup>18)</sup>

엄복이 ‘계’라는 단음절 어휘를 택한 것은, 그것이 고대 전적의 맥락에서도, 그리고 서양의 Economy의 어원과도 잘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단음절은 상대적으로 더욱 다양한 맥락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글자 어휘보다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엄복이 단음절 어휘를 취한 것은 그의 번역 방식의 고달픔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책일 수 있다. ‘명학’이라는 개념어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였다.

Logic을 ‘명학’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명칭과 의미는 그리스에서 기원하며, logos의 한 갈래의 변형이다. …… 반드시 근사한 것을 찾다가 ‘명학’으로 번역하였다. 중국 글에서 ‘명’이라는 글자가 함축하는 바의 심오하고 정밀함은 로고스와 큰 차이가 없다(邏輯此翻名學, 其名義始于希臘, 爲邏各斯一根之轉. …… 必求其近, 姑以名學譯之. 盖中文惟‘名’字所涵, 其奧衍精博與邏各斯字差相若).<sup>19)</sup>

‘名’이라는 한 단어가 가진 심오한 뜻을 취한 것이다. 한 글자가 가진 번역의 용이함은 ‘right’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다만 ‘Rights’ 이 단어는 내가 3년 전에 처음 서양의 정치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이 글자의 대응어가 없음을 곤혹스러워하다가 억지로 ‘權利’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패자를 왕자로 번역한 것으로, 의미에 해로운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훗날 우연히 《漢書》를 보다가 ‘朱虛侯忿劉氏不得職’ 구절을 만나, 홀연 이 ‘職’ 자가 바로 ‘Rights’의 번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어는 ‘Duty’와 혼동될 수 있어서 통용하기 어려움을 난감해하면서도, 역시 사용하였습니다. 훗날 또 高郵의 《經義述聞》에서 《毛詩》의 ‘爰得我直’ 구절에서 ‘直’은 마땅히 ‘職’으로 읽어야 윗장의 ‘爰得我

18) 嚴復, <譯斯氏《計學》例言>

19) 嚴復, <穆勒名學案語>(伍杰 編著, 《嚴復書評》(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1), 160-161 쪽)

所과 그 뜻이 서로 대응한다고 풀이하고, 재차 《管子》의 ‘孤寡老弱, 不失其職, 使者以聞’, 《管子》의 ‘法天地以覆載萬民, 故莫不得其職’ 등의 문장을 인용한 것을 보았고, 이렇게 하여 예전의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直’자로 ‘Rights’를 번역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대체로 큰 개념어를 번역할 때는 항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양 글자의 최초의 뜻을 취해 헤아리고, 다시 일체의 파생 의미를 수집한 뒤에 중국의 글을 돌아보아서 비슷한 것을 찾으면 왕왕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부합하면 쉬이 괴리되지 않을 것이니, 예컨대 ‘Rights’ 단어는 서양 언어에도 ‘直’이라는 뜻이 있어서, ‘幾何直線’을 ‘Right line’, ‘直角’을 ‘Right Angle’이라고 부르니 중국과 서양의 파생의미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惟獨Rights一字, 僕前三年, 始讀西國政理諸書時, 即苦此字無譯, 強譯‘權利’二字, 是以霸譯王, 于理想爲害不細, 后因偶披《漢書》, 遇朱虛侯忿劉氏不得職一語, 恍然知此職字, 即Rights的譯. 然苦其名義與Duty相混, 難以通用, 即亦置之. 后又讀高郵《經義述聞》, 見其解《毛詩》‘爰得我直’一語, 謂直當讀爲職. 如上章‘爰得我所’, 其義正同, 疊引《管子》‘孤寡老弱, 不失其職, 使者以聞’, 又《管子》‘法天地以覆載萬民, 故莫不得其職’等語. 乃信前譯之不誤, 而以直字翻Rights尤爲鐵案不可動也. 蓋翻觀大名義, 常須沿流討源, 取西字最古太初之義而思之, 又當廣搜一切引伸之意, 而后回觀中文, 考其相類則往往有得, 且一合而不易離. 譬如此Rights字, 西文亦有直義, 故幾何直線謂之Right line, 直角謂Right Angle, 可知中西申義正同.<sup>20)</sup>

그는 우선 고증적 방법을 동원하여 적당한 어휘를 발굴하고, 그 글자가 파생 의미를 포섭하고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直’은 ‘right’의 대응 어휘로 나머지 파생 의미까지 포섭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매우 만족스러워하였다. 특히 그 내포가 흡사한 어휘가 있을 때, 스스로가 알 수 있고, 남들도 보아 알 수 있다면 족하다고 하여, 어원 추적으로 얻은 개념어는 설령 파생 의미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直’자의 경우처럼, 파생 의미까지 일치한 경우라면, ‘확고부동한(鐵案不可動)’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는 단음절 어휘가 갖는

20) 嚴復, <與梁啟超書·三>

활용상의 이점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기원을 찾아가는 엄복 자신의 번역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편이 되었다.

#### IV. 엄복 번역어의 운명

앞에서 본 엄복의 번역 방식은 그것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그의 번역 작업은 기원으로 소급하고 있으며, 기원으로 소급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 지금의 의미로부터의 격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보다 고대 전적 속에서 찾은 어휘는 동떨어져서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만을 누구보다 먼저 제기한 사람은 양계초였다. 그는 20세기 초 쓴 글에서 엄복의 번역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논하였다. 그가 생각한 바람직한 번역은 일본의 신조어를 수입하거나, 평이한 번역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대의 黃遵憲도 엄복에게 새로운 어휘의 창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엄복은 거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sup>21)</sup> 이런 엄복의 입장과 관련하여, 라틴어와 문언에 대한 그의 관점은 참고할 만하다. 엄복은 서양의 언어를 라틴어와 국어로 구분하였고, 그 라틴어를 문언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국어는 함의가 일천하여 심오한 의미를 담을 수 없다고 보았다.<sup>22)</sup> 이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일본 신조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나, 또는 신조어를 창안하지 않은 것은 문언 어휘들이 상대적으로 깊은 사상적 맥락 속에 놓여있어서 심오한 의미를 충분히 담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왕국유도 엄복의 번역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확한 번역어를 제시하지

21) 졸고, 《晚清傳統文人與文言—以後期桐城派爲中心》(박사학위논문, 남경대 중문과, 2004.5), 86쪽.

22) 졸고, <嚴復的文言書寫觀點>(《徐州師範大學學報》(徐州師範大學, 2004.1)), 34쪽.

못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일본어 어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사실 엄복도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는 글자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컨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일본어 신조어에 대해서는 “서양의 개념어의 일본어 번역은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지만, 다만 이것도 보편화되어서 바꿀 수 없다 (西名東譯, 失者固多, 獨此天成, 殆無以易)”<sup>24)</sup> 고 하였다. 또한 ‘헌법’이란 일본식 신조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그 이름이 수입된 이후 널리 퍼져서, 조정의 조서에서도 자주 보이니, 아마도 바꿀 수가 없다. 그저 가져다 쓰다가, 훗날 다른 곳에서 이런 글자를 접하면, 다시 새 개념어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其名自輸入以來, 流傳已廣, 且屢見朝廷詔書, 殆無由改, 只得沿而用之, 異日于他處遇此等字, 再行別譯新名而已).<sup>25)</sup>

엄복은 부득이함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개념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훗날 다시 개념어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복의 거부는 근본적으로 일본 신조어가 손님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한다.

지금 서양에서 2, 3천년동안 태동되어 발전한 학술을 30년 애써서 조금 터득한 일본으로부터 구한다. 비록 그 번역서가 풍부하다고 해도, 그 개념어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으니, 그 고증한 바가 치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저 우리와 가깝다는 이유로, 천하학자를 몰아서 이끌어다니, 세상의 무지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함이 이 정도인가(今求泰西二三千年孳乳演進之學術, 于三十年勤苦僅得之日本, 雖其盛有譯著, 其名義可決其未安也, 其考訂可卜其未密也, 乃徒以近我之故, 沛然率天下學者群而趨之, 世有無志而不好學如此者乎)?<sup>26)</sup>

23) 王國維, <新學語之輸入>(《千古文心: 王國維文選》)(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2), 41-44쪽)

24) 嚴復, <群己權界論譯凡例>

25) 嚴復, <憲法大義>

이렇게 볼 때, 이들의 주요 쟁점은 해당 번역어가 의미를 충분히 담지 하고 있는가아닌가 그 여부에 있다. 하지만 왕국유는 엄복의 노력과 달리, 엄복의 번역어가 일본 신조어에 비해, 충분히 함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Evolution’은 ‘天演’으로 ‘Sympathy’를 ‘善相感’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엄복의 그 번역어와 일본의 번역어 ‘進化’, ‘同情’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지,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부족한 지, 외국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면 이내 알 수 있을 것이다(孰得孰失, 孰明孰暗, 凡稍有外國語之知識者, 宁俟終朝而決哉!”<sup>27)</sup>고 지적하였다. 왕국유와 마찬가지로 章士釗도 엄복의 번역어를 비판하였는데, 역시 그 번역어가 손님어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엄복이 논리학에 대응하는 번역어로 ‘名學’을 창안한 것을 예로 들고, 엄복의 ‘명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만을 대변할 뿐, 이후의 베이컨의 논리학을 대변하지 못하는<sup>28)</sup> 개념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논리학》에서 밀로부터 얻은 것은 행동의 계획, 즉 귀납의 방법을 통해 자연(인간의 사회사에 구현된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sup>29)</sup>고 인식한 데서 보듯, 엄복은 베이컨의 귀납법을 매우 중시하였고, 바로 이점에서 장사조의 논거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제쳐놓고 볼 때, 이러한 논쟁은 역시 그가 기원을 탐색하여 개념어를 대응시킨 데서 생긴 괴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점을 왕국유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엄복의 번역 방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지적하였다.

26) 嚴復, <與《外交報》主人書>

27) 王國維, <新學語之輸入>(《千古文心: 王國維文選》)(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2), 42-43쪽

28) 王宏印 著, 《中國傳統論經典詮釋—從道安到傅雷》(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3), 122쪽

29) 벤저민 슈워츠 지음, 최효선 옮김, 《부와 권력을 찾아서》(과주: 한길사, 2006), 253쪽

서양의 새로운 개념어를 자주 부적당한 고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였다  
(西洋之新名詞, 往往喜以不適當之古語表之).<sup>30)</sup>

그리고 왕국유는 또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만약 일본의 기존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국의 옛 단어만큼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예컨대 엄복이 번역한 ‘명학’은 예스럽기는 하지만,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일본인은 대개 두 음절  
을 사용하고, 그중 통하지 않은 것은 다시 네 자로 표현한다. 중국인은 단  
음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니,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음은 바로 여기에 원인  
이 있다 (若謂用日本已定之語, 不如中國古語之易解, 然如侯官嚴氏所擇之《名  
學》, 古則古矣, 其如意義之不能了然何? ……日本人多用雙字, 其不能通者  
則更用四字以表之; 中國則習用單字, 精密不精密之分, 全在于此).<sup>31)</sup>

그는 중국인들이 한 글자를 주로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 바로 부정확한  
번역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왕국유가 비록 글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우  
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는 엄복의 번역어에 직접 적용되는 지적이다  
엄복이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단음절 번역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의미 전달이 불명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단음절 개념어는  
포괄하는 의미 범주를 넓힐 수 있지만, 그만큼 애매성의 범주도 늘어날  
운명에 놓여있었다.

## V. 엄복의 번역, 담론을 논하다

당시 청말은 정치적 담론이 유행하던 시기로, 엄복처럼 학술, 사상의 원

30) 王國維, <新學語之輸入>(《千古文心: 王國維文選》)(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2), 42-43쪽)

31) 王國維, <新學語之輸入>(《千古文心: 王國維文選》)(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2), 44쪽)

천으로서 철학적 원리에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모든 학문의 바탕으로 사회과학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번역을 통해 해당 담론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일하는 바는 또한 하나같이 모두 학술에 근본을 두고, 그 학술을 하는 바는 또한 하나같이 실제의 일과 실제의 이치에서 추구한다(其爲事也, 又一一皆本之學術; 其爲學術也, 又一一求之實事實理).<sup>32)</sup>

서양의 학문과 그 학문 태도를 이렇게 봤던 엄복은 누구보다 실제에 부합하는 담론의 번역에 관심을 쏟았다. 사람들은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관조한다. “관조란 ‘개념을 통해 봄’ 일 뿐이다. 미리 창조되어 있는 개념 없이는 사유는 맹목일 뿐이며 아무것도 관조하지 못한다.”<sup>33)</sup> 따라서 들뢰즈는 “철학은 개념들을 형성하고 발명하고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개념어는 바로 담론의 의미를 인도하는 문인 셈이다. 엄복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개념어란 번역의 처음이며, 또한 끝이다. 언어는 반드시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학술은 반드시 길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할 근거가 없으니, 그러므로 ‘權輿’라고 한 것이다. 지식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방향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짐차 쇠망한다. 그러므로 ‘歸宿’이라고 한 것이다(今夫名詞者, 譯事之權輿也, 而亦爲之歸宿. 言之必有物也, 術之必有途也, 非是且靡所托始焉, 故曰權輿. 識之其必有兆也, 指之其必有筭也, 否則隨以亡焉, 故曰歸宿!<sup>34)</sup>

엄복이 개념어의 번역에 그토록 신중을 기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확한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

32) 嚴復, <原強>

33) 서동욱, 《차이와 타자》(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40쪽

34) 嚴復, <普通百科新大詞典序>(《嚴復集·제2책》(北京: 中華書局, 1986), 277쪽)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의 번역 작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번역어의 비참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엄복의 고증적 번역 방식은 기원의 차원으로 소급함으로써, 언어의 원의에서 파생되는 의미들이 해당 언어 유통 지역의 인문적 환경에 간섭을 받아 서로 다르게 굴절되는 것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곧 “개별 어휘들이 개별 언어 공간에서 형성되는 역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한 일대일 대응을 진행시키는”<sup>35)</sup> 과정에서 빚어지는 오역의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계열화시키느냐에 따라, 손님언어의 파생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대로 예비해두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찾고, 그 정확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었던 그의 몸짓은 무엇보다 정확한 담론의 전달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단음절 어휘의 사용도 애매성을 증대시키지만, 한편으로 풍부한 내포를 지님으로써 전달하려는 개념을 충분히 반영해내기도 한다. 벤저민 슈윙츠는 엄복이 ‘nature’의 역어로 ‘天’을 택한 것을 예로 들고, 그 애매성의 범위가 서로 별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며, 그 번역어가 기본적 개념을 적절히 전달하고 있다고 논하였다.<sup>36)</sup> 서로가 가진 애매성이 적절히 겹치고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문제는 오히려 지나친 案語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파생의미를 애초 손님언어가 가진 외연으로 연쇄시키지 못하였던 데 있다. 고증적 번역, 단음절 번역으로 인해 개별 번역어들의 원의미가 파생 의미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어 주변을 감싸는 언표들에 따라 계열화되고, 그에 따라 의미의 연쇄가 일어남으로써, 주인언어는 손님언어와 독자적으로 그 자질을 확보할 것이지만, 이는 손님언어의 파생 의미와 점차

35) 리디아 리우 지음, 민정기 옮김, 《언어획단적 실천》(서울: 소명출판, 2005), 20쪽.

36) 벤저민 슈윙츠 지음, 최효선 옮김, 《부와 권력을 찾아서》(파주: 한길사, 2006), 142-144쪽.

격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왜곡’인 셈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를 엄복 자신도 모르지는 않았다.

중간의 취지는 원서를 수용하였지만, 나중의 인용과 비유는 대체로 내 뜻대로 바꾼 것이다. 나는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니, 원문과의 부합 여부는 알 바 아니다(中間義旨 則承用原書 而後引喻設譬, 則多用己意更易. 蓋吾之爲書, 取足喻人而已, 謹合原文與否, 所不論也).<sup>37)</sup>

그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담론을 전달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볼 때, 서구의 담론 속에서 중국에 필요한 담론들을 부각시킴으로써, 파급 효과를 의도하였던 격동기의 지식인에게 파생된 의미가 탈각된 어휘들을 택한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벤저민 슈워츠는 엄복의 번역에서 생겨난 “왜곡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우선적인 관심사 때문에 왜곡된 관점이 모든 번역을 굴절시키기 때문”<sup>38)</sup>이라고 보았다. 이런 목적에서 본다면 기존 어휘에서 차용하는 것보다는 신조어를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자유로운 논의에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 그는 라틴어와 고문이 가진 개별 어휘의 내포가 심오한 사고를 전달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결’한 문체를 유지하는 장점까지 있다고 보았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가 신조어의 창안을 거부하고 찾아낸 번역어는 새로운 기호가 가진 효과, 곧 “‘우연히’ 나타나 자기 안에 들어 있는 바를 해석하기를 ‘강요’하는”<sup>39)</sup> 효과를 구현해내지 못한다. 물론 엄복이 익숙한 단어를 대응시키지 않고 기원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전히 ‘비표상적 상처’<sup>40)</sup>를 선사하

37) 《名學淺說》序

38) 벤저민 슈워츠 지음, 최효선 옮김, 《부와 권력을 찾아서》(과주: 한길사, 2006), 144쪽.

39) 서동욱, 《차이와 타자》(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65쪽.

40) 기호가 적합한 표상을 수반하지 않고, ‘정체불명’의 폭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말(서동욱, 《차이와 타자》(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102쪽)

고는 있지만, 이 엄복의 번역어가 주는 '상처'는 전통/반전통의 흐름 속에서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것이 20세기 초에 들어 엄복의 번역어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련되지 못했던 그의 번역어는, 그가 정확한 개념어를 발굴하기 위해 쉽 없이 기원을 탐색하고, 또 간섭 없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맥락을 가진 문언 속에서 힘들게 단음절 어휘를 찾아내었으며, 더불어 곳곳에 '안어'들을 두어 수없이 많은 맥락 속으로 계열화시킴에 따라, 주인언어로서 자신의 해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벤야민은 '번역가의 임무'라는 글에서, 원천언어로 된 원본이 수용언어로 된 번역본보다 앞서서 가진 일체의 권리들을 폐기하고, 둘의 지향으로서 '순언어'를 상정하고, 둘을 동등한 지평으로 끌어내린 바 있다.<sup>41)</sup> 엄복의 개념어가 주인언어로서 자신의 맥락을 유지하고 고집하는 한, 그의 개념어는 '순언어' 앞에서 손님언어와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엄복의 번역 전략은 시대를 위해 필요한 '순언어'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 < 參考文獻 >

- 嚴復 著, 王栻 主編, 《嚴復集》(전5책), 北京: 中華書局, 1986.  
 孫應祥 著, 《嚴復年譜》,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3.  
 伍杰 編著, 《嚴復書評》,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1.  
 《中國近代期刊彙刊-強學報·時務報》(전5책), 北京: 中華書局, 1991.  
 벤저민 슈위츠 지음, 최효선 옮김, 《부와 권력을 찾아서》, 파주: 한길사, 2006.  
 姜東賦, 劉順利 選注, 《千古文心: 王國維文選》,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2.

41) 리디아 리우 지음, 민정기 옮김, 《언어횡단적 실천》(서울: 소명출판, 2005), 39쪽.

- 王宏印 著,《中國傳統譯論經典詮釋—從道安到傅雷》,武漢:湖北教育出版社,2003.
- 馬祖毅 著,《中國翻譯簡史:“五四”以前部分》,北京: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1998.
- 李偉 著,《中國近代翻譯史》,濟南 濟魯書社,2005.
- 페데리코 마시니 지음, 이정재 옮김,《근대 중국의 언어와 문자》,서울:소명출판,2005.
- 리디아 리우 지음, 민정기 옮김,《언어횡단적 실천》,서울:소명출판,2005.
- 줄고,《晚清傳統文人與文言—以後期桐城派爲中心》,박사학위논문,남경대 중문과,2004.5.
- 줄고,〈嚴復的文言書寫觀點〉,《徐州師範大學學報》,徐州師範大學,2004.1.

### <中文摘要>

衆所周知,嚴復在清末投身于翻譯西學著作.他的翻譯對中國現代化有很大影響.本文所研究的內容是他通過如何途徑翻譯概念詞匯的.他翻譯過程就顯示出他的翻譯重點所在,而且會呈現出他所翻譯的目的和局限.

嚴復翻譯概念詞時,經常採用的翻譯途徑是,首先追溯相對詞匯的本意,據此繁索中國古代典籍找出相符的詞匯,不過重要的是,他所考慮的中文詞匯的意思也同樣在初義的層次上進行的,這表示他‘立名’時,着重于詞匯的初義.那麼,那些由本意派出的意思他怎麼處理的呢?他仍然將本意的一致放在首要前提,如派生的意思也一致,他就認爲是很理想的翻譯.

不過,他的這種翻譯途徑自然造成一些局限,因此它面臨這種局限,就採取既保持它的翻譯原則又提高工作效率的方法,即是在翻譯時漸漸習用單字立名,如“名學”、“計學”、“群學”等.這自然幫助他較爲容易形成詞匯.但這種翻譯方式同時有一些弱點.他以考証的方式找出相符的詞匯,從一個角度看,像梁啓超所指出的那樣,雖然可以維持古雅,而不免離譜.章士釗、王國維也指明

了類似的問題. 王國維又指出, 嚴復的翻譯詞之所以不妥當, 是因為它是由一个字組成的. 一个字的詞匯固然包括較為廣泛的派生意思, 但同時失為太籠統.

那么,他為什麼採取這種方式呢? 大多研究主要着眼于他固守文言的傾向, 而我們要注意他并不是疏忽對方語言的本意的, 為傳達正確的意思而盡力. 這表示古雅不是他的第一个目的, 也在找出正確詞匯的途徑上選擇的. 其中一个原因是古語內涵更丰富. 不過, 他既然選擇初意, 而把它放在很多案語中, 這導致客人語言逐漸脫離于客人語言, 換个角度看, 嚴復可將新的活力注入主人語言, 這才是他翻譯的目的.

주제어 : 개념, 개념어, 고증적 번역, 손님언어, 주인언어, 순언어

K C I